

강진 봄꽃 관광객 26만명...지역경제 활력소 역할

4차기술 분석 결과 8만명 늘어 관광객 편의 위해 사전준비 철저

강진군이 4차산업혁명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해 지난 6~14일 군동면 남미특사 일원에서 열린 봄꽃축제 방문 관광객 수치를 분석한 결과 기존 17만여명보다 8만여명이 늘어난 총 26만명이 강진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내년축제에 4차산업 기술을 도입해 관광객 편의 증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이동인구 분석 결과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기간 중 25만9000여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했다.

축제장을 방문한 연령대 비중을 보면

10대 이하 10%, 20대 6%, 30~50대 45%, 60대 이상이 39%를 차지했다. 강진을 제외한 관광객들의 연고지는 전남 43%, 광주 26%, 경상권 6%, 경기 6%, 서울 5% 순이었다.

티맵 네비게이션 검색 순위를 살펴보면 2023년 축제기간 동안 전남도내에서 강진 남미특사가 5위(2833건)였으나, 2024년 같은 기간 전남도내에서 강진 남미특사의 검색 순위는 2위(7401건)로 경증 뛰어올랐다.

이번 축제 성공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강진군청 직원들의 노력이 컸다는 분석이다.

곳곳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고,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한 결과라는 것.

드론을 통한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

하고, 이를 통해 축제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드론을 통한 실시간 교통상황을 파악은 실시간 우회도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극심한 교통혼잡 속에서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축제 현장 속에서 영상 촬영, 제작, 홍보 업무도 현장 즉각적으로 이뤄졌다. 실시간으로 제작된 고품질의 영상은 홍보팀을 통해 전국 방송사로 전달됐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는 젊은 관광객들을 유도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축제 기간 중 서부해당화 영상한 건이 120만뷰를 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더해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축제장 일대의 통신 트래픽이 폭증,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강진군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 관계자는 "내년에는 이러한 통신장애에 대비해 기지국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대처도 필요하다"이라며 "예측을 벗어날 정도로 축제가 대성공이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축제 성공과 홍보의 이면에는 전남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4차산업혁명활용부서를 둔 강진군의 선제적인 행정과 도전의 결과"라며 "내년 축제는 보다 활발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세세한 영향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청년 푸드트럭 영업자 5명 모집 영암군, 5월10일까지

영암군은 다음달 10일까지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영업할 청년 푸드트럭 영업자 5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영암군의 먹거리 콘텐츠 육성 종합계획의 하나로, 관광객들의 편의와 청년 사업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영업자에 선정되면 앞으로 2년간 영암군의 각종 행사 때 지정된 장소에서 우선 영업권을 얻을 수 있다.

푸드트럭 운영장소는 여름 물놀이장이 개장되고 가을 국화축제가 열리는 기찬랜드, 봄 벚꽃 개화기 왕인문화축제장인 왕인박사유적지, 각종 체육행사가 열리는 영암종합운동장 등이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민인 19~49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참여 희망 청년은 영암군 먹거리위생팀으로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의 주요 관광지에서 청년에게는 기회를, 관광객에게는 편의를 주는 영암군의 명물 푸드트럭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이병영 기자

취약계층 청소 봉사활동 무안군 망운면 새마을협의회

무안군 망운면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신경태)가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희숙은)와 지난 16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2일 무안군 망운면 새마을지도자회에 따르면 회원 30여명은 고물, 갖은 옷가지 및 잡동사니를 집에 쌓아놓고 살고 있는 열악한 대상자의 가구를 방문해 묵은 먼지를 제거하고 집안 내외부에 쌓여 있던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등 청소 봉사를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희숙 새마을부녀회장은 "정소에 어려움이 있는 이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이 되고자 회원들과 함께 청소 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대상자분이 환하게 웃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매우 뿌듯하고 작은 일이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기수 망운면장은 "손길이 필요한 곳에 바쁜 일을 마다하고 봉사활동에 같이 참여해 주신 새마을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역 봉사단체와 지속해서 협력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청년 디딤돌 통장 가입 모집 해남군, 이자 추가 지급

해남군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를 오는 5월3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전남도와 해남군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3년 만기 시 720만원과 이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미래공통체과(061-530-5062)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군 망운면 새마을지도자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강진에 국내 최대 학생수련시설 들어선다

신전면 벌정리 일원

강진 신전면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 학생 수련시설이 들어선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 신전면 벌정리 일원에 들어서는 다산학생수련원은 500명 동시 합숙이 가능한 생활관과 다목적 교육관, 생존수영 및 해상안전체험장 등 주요 시설을 구축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수련시설로 구축될 예정이다.

수련원은 교육비 특별회계 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다산학생수련원 건립은 2022년 강진원 강진군수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건의한 사업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시대정신과 리더십이 숨 쉬고 있는 강진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수련 활동을 탈피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현장교육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강진군에서 부지를 제공한다.

지난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강진원 군수의 건의를 수용해 2023년 태스크포

스(TF)팀을 구성하고 글로벌 미래교육 수련시설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했다.

강진군은 전남도교육청과 강진 신전면 벌정리 일원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의 문화유산과 기반시설을 활용해 수련원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두 기관의 협업을 바탕으로 전남형 교육자치, 미래교육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을 강진군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무안군, 영농철 종자소독 철저 당부

병해충 사전 예방

무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건전 묘 생산을 위하여 올바른 법씨소독법과 약제 사용 요령 등 영농지도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정부 보급종은 농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종자를 통해 전염되는 키다리병, 벼잎선충 등 쌀 수량 감소 및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건전한 법씨를 선별하고 파종 전 철저히 소독할 것을 당부했다.

벼 종자 소독 방법은 온탕소독과 약제 침지소독이 일반적이다.

온탕소독은 60℃의 물 100L에 법씨 10kg을 10분간 담가 소독 후 꺼내어 바로 찬물에 10분간 식혀주는 방법으로 물과 종자의 비율은 10:1이 좋다.

약제침지 소독은 법씨소독 적용약제

선택, 종자량의 2배 물량에 약제 희석하고, 법씨 10kg 단위 망사자루에 담아 법씨 발아기를 이용하여 30~32℃의 온도로 맞춰 48시간 동안 담가 소독하는 방법으로 약제별 희석배수, 약액 온도 및 침지 시간을 준수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온탕소독과 약제침지 소독을 병행하면 97% 이상의 높은 종자소독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병 발생이 우려되는 자가채종 농가나, 공동 육묘장, 대규모 농가는 온탕소독과 약제침지 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무안=김행언 기자

'맛플무안몰' 전품목 20% 할인 무안군, 룰렛 추첨 이벤트 등

무안군 공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이 22일 문을 열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맛플무안몰은 지역에서 생산된 다채로운 먹거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양파, 고구마, 쌀, 김, 한우 등 무안군이 자랑하는 특산물과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총 160개 품목이 채워져 있다.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주요 이벤트는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20% 할인쿠폰(최대 2만원) 지급, △햇양파 할인전, △키카오톡 친구 추가 시 적립금을 지급 △룰렛 추첨 이벤트, △상품 후기 작성 시 적립금 증정 등 풍성한 혜택을 만날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은 편리하게 쇼핑을 시작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쇼핑몰 '남도장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간편결제 서비스도 지원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맛플무안몰 개장을 통해 온라인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농가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기별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全南日報